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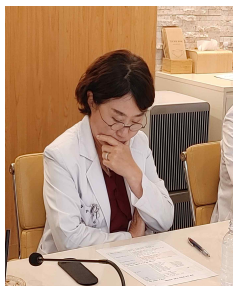
구로병원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 행정동 3층 이음 회의실에서 2023년 구로병원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열렸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정희진 병원장을 필두로 신정호 기획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자리했으며 노측은 대표위원으로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 및 전임간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이 전임자로 부임 후 이뤄지는 노사 공식회의 인만큼 노사 위원과 참관인 모두가 인사를 하며 얼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정희진 병원장, 직원들의 위한 소통 주기적으로 하겠다.



본회의 전 대표위원 인사말을 통해 정희진 병원장은 “산안위를 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업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이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 노사 소통하는 자리 계속 이어가자
노측 대표위원인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원장을 만나는 기회는 있으나 병원장님들을 만나는 기회는 산안위 밖에 없다. 병원이

커가고 있고 단위 병원들의 역할이 많아진 상황에서 병원장님 및 임원분들과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안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 주요 안전을 다뤄야 하나 노사 만나는 자리인 만큼 소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로가 3개 병원 중에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안위 통해 ▲환자 체위변경 부서 손목보호대 ▲아웃가운(랩가운) 착용부서 외출 시 이용대책 마련하기로.



〈터널증후군 방지 위한 보호대〉

한편, 2/4분기 산안위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자 체위변경으로 인해 터널증후군을 호소하고 수술까지 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손목 보호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외출 시 아웃가운(랩가운) 착용이 불가해 동절기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내년에 지급될 의복을 미리 지급하기로 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사 소통을 통해 병원안전과 직원건강을 책임지자

꾸준한 산안위 진행과 노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직원 안전보건의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가는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다.

산안위는 노사의 구분 없이 직원과 환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의결기구다. 고대의료원이 초일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사가 한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더 크고, 많은 성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환경관리실 1인 근무 위험에 따른 비상벨 설치 건】 환경관리실 업무의 특성상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빠른 조치를 위해 무전기와 비상벨 설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상벨과 무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통신이 원활치 않아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고 LTE 무전기로 교체했고 바로 방재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10월 중순 노사 간 자료 공유 및 검토하고, 10월 말 3개 병원 노사 실무진간 내용 정리한 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동의한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도급인(병원)과 수급인(주차, 미화 등 용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노동조합 참여 및 안전보건회의록 공유 건】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근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도 공유해 달라. 노조가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급업체에서도 노사협의체등의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중 회의가 될 것 같다. 먼저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도급업체 회의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열람과 안건이 생겼을 시 상정하여 논의는 가능하다.
	【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 및 자료공유 건】 올해 5월부터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매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야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방식의 평가가 생겼다.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료도 공유해 달라.	분기별 노사합동점검으로 진행하자. 위험성 평가 자료는 공유 가능하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남자 탈의실 개선 건】 올해 8월 경 남자 탈의실이 이전됨에 따라 사용이 불편해졌다. 더욱이 많은 부서의 남자직원들이 사용하면서 공간이 좁아진 문제 및 탈의실 문 개폐 시 신체 노출이 불가피해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자.	레일커튼을 설치해 탈의실이 보이지 않도록 개선했고 의자도 휴게용으로 비치해두었다. 현재 공간 문제로 개선이 어려우나 추후 이전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일반직 임부복 지급의 건】 임신한 여성 직원들이 임부복을 신청했으나 지급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받지 못했는데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임부복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출산 시 임부복이 필요 없어 그것을 여분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